

영화 죠스의 삽입곡 “Show Me the Way to Go Home”을 통해 인식된 음악의 사회적 기능

김현중

여주대학 실용음악과

e-mail: bonzurm@yahoo.com

The social function of music recognized through the movie Jaws' "Show Me the Way to Go Home"

Hyounjong Kim

Dept. of Popular Music,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

요 약

영화 죠스(Jaws)는 주지하다시피 1975년에 나온 스티븐 스피버그(Steven Spielberg)감독의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이다. 여름 휴양지에서 나오는 식인 상어 이야기의 전형이 되어버린 작품으로 그 원작은 피터 벤츨리(Peter Benchley)의 1974년 동명 소설이나 이 영화로 인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이다. 여기에서 삽입곡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곡은 공포 영화음악의 대명사가 된 존 윌리엄스의 Main Title이다. 그러나 나는 이 영화의 소위 “Scar Scene”이라고 불리는 장면에 나오는 “Show Me the Way to Go Home”이라는 곡에 대하여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해 보았다. 이 영화의 중요한 인물 3명은 이 섬의 경찰서장으로 새로 부임한 뉴욕에서 온 브로디(Martin Brody) 서장과 해양 생물학자 후퍼(Matt Hooper), 그리고 현상금을 받고 온 상어 전문사냥꾼 퀸트(Quint) 선장이다. 이 세 사람은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다르고 서로 공통점이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, 그 섬의 골칫거리인 식인 상어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동행을 하게 된 것이다. 이 장면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큰 상어의 모습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, 상어의 공격이 잠시 멈춘 시간 동안 그 두려움과 긴장을 어색하게 해소하려는 세 사람의 대화 장면이다.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더니, 이내 그들은 한목소리로 크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된다.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공감과 화합이라는 것이다. 같은 시기에 유행하였던 히트곡을 통해 살아온 배경과 현재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며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은 음악이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기능이며 동시에 목적인 것이다. 여러 영화와 음악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. 본 연구자는 이 시대를 사는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, 현재의 음악이 본래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한 음악으로 창작될 때에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.